

ORIGINAL ARTICLE

수성유원지 장소성 인식 요인 인과구조모형 분석

한재경 · 엄봉훈^{1)*}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¹⁾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Causality of Placeness Cognitio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Suseong Amusement Park

Jae-Gyeong Han, Boong-Hoon, Eom^{1)*}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Landscape Architecture, G.S.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buk 38430, Korea

¹⁾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buk 38430,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ity of placeness cognition which includes the place satisfaction, place attachment, place fun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those who visit Suseong amusement park.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255 individuals who visited in Suseong amusement park. To conduct the analysis, six hypotheses were formulated and tested. While two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rejected, four hypotheses were accepted. First, plac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lace function ($\beta=.577$, $p<0.001$). Second, place attach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beta=.450$, $p<0.001$). Third, place fun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beta=.247$, $p<0.05$). Fourth, place fun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lace attachment ($\beta=.637$, $p<0.001$). Unlike most existing research which has indicated that place satisfaction has a direc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suggests a that double mediating effect through place function and place attachment between plac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addition to increasing satisfaction through the environment of the Suseong Amusement Park,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place to ensure repeated visits from visitors.

Key words : Placeness, Satisfaction, Place function, Place attachment, Behavioral Intension, SEM, Suseong amusement park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수성유원지는 대구시민의 대표 여가문화 공간으로 연간 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Lee, 2018). 수성유원지는 수성못과 놀이공원인 수성랜드를 포함한 호수공원과 주변 상업시설을 아우른다. 1927년 농업용 저수지

로 축조하였으며, 1969년 수성못과 그 일대를 유원지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기반시설 부족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시피 해 유원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오다가, 2010년 이후 ‘수성못 친환경 생태복원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산책 데크 설치,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대구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유원지이자 만남과 휴식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Received 5 August, 2020; Revised 24 September, 2020;

Accepted 5 October, 2020

*Corresponding author: Boong-Hoon Eo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38430, Korea
Phone : +82-53-850-3189
E-mail: bheom@cu.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수성유원지는 호수 산책 데크, 법이산 숲길, 수성랜드, 카페거리와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며, 연중 버스킹 공연과 영상 음악분수, 벚꽃시장, 수성못 페스티벌 등 문화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Relph(1976)는 장소성이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장소마케팅의 핵심이 되며 이를 통해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장소성은 그 지역만의 특성을 형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Lee and Choi, 2011). 지자체에서는 지역 정체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에 주목하고 있지만, 대상지의 장소성 인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다. 수성유원지는 환경정비 및 상업시설 입지 등의 성과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문객의 만족도, 장소성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성유원지의 관리방안에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유원지의 개선과 관리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성유원지 환경정비에 따른 명소화로의 변모 이후, 방문객들의 장소 만족도와 장소성 인식 요인 및 행동의도 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유원지의 만족도 향상과 장소성 인식을 높이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Relph(1976)의 장소에 대한 개념 제기 이후, Tuan(1979)을 거쳐 다수의 이론적 연구들(Lee and Hwang, 1997; Han and Im, 2009; Maarja and Hannes, 2009)이 있었으며, 2010년대 이후 장소성의 형성 여부와 그 인식 정도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and Choi, 2011; Lee, 2012; Brehm, J. M. et al., 2013). 이후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인사동 가로의 장소성 연구(Kwon et al., 2011)에서는 물리적, 행태적, 사회적 요인의 만족도가 장소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성 인식이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장소성 연구(Kim and Kim, 2014)에서 장소성 형성요인은 장소애착을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홍대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Kang

and Choi, 2012)에서도 장소성 인식은 장소애착을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장소성의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장소성 형성 요인간의 복잡한 관계와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이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실제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Relph, 1976; Shim, 2014). 장소성은 장소의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지각, 행태 그리고 심리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Kown et al., 2011). 다수의 연구에서 장소성과 장소감에 대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장소감은 개인의 장소에 대한 지각을 말하며, 장소성은 개인과 집단의 장소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Lee and Hwang, 1997). 따라서 수성유원지의 방문객에 대한 연구는 장소감 보다는 장소성이 더 적합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수성유원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는 수성유원지 환경 개선 이후의 이용 만족도 결정 요인 분석(Kim et al., 2015)과 수성못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축제의 매력성 연구(Kim, 2017)가 있다. 하지만 탐방객의 장소성 인식요인에 대한 인과구조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성유원지는 종래의 낡은 유원지에서 생태복원 및 환경정비 개선 사업 이후 다수의 상업 서비스 시설 위주로 괄목할 환경과 공간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이용자 증가와 계층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수성유원지의 장소성 인식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정량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범위

수성유원지의 중심 호수의 크기는 21만 8,000 m²이며 둘레는 2,020 m로 산책,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 법이산 자락과 수성못이 연결되어 우수한 경관을 제공하고 주변 카페거리와 먹거리타운과 연결성이 좋아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생태복원사업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어 그 장소성 인식 요인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성유원지의 공간적 범위를 수성못과 주변의 상업시설

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2. 연구모형과 측정변수, 연구가설

장소성은 개인이 특정 장소에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성의 형성요소에는 환경적, 물리적, 사회적 요소가 있다(Im et al., 2013). 장소애착은 개인이 특정 장소에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적 또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Giuliani and Feldman, 1993; Williams and Vaske, 2003; Lee and Lee, 2014).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검증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Halpenny, 2010; Kang and Choi, 2012; Im et al., 2013; Park, 2013; Choi et al., 2020). 장소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장소가 갖는 역할을 뜻한다. 행동의도란 개인이 어떤 행동하기 전의 인지 상태를 말하며, 장소성 연구에서는 특정 장소에 재방문 의사, 긍정적 대답, 추천 의사를 측정한다(Kang and Choi, 2012; Lee, 2012; 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장소성의 형성요인들로서의 장소 만족, 장소애착, 장소인식, 행동 의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장소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인과구조를 분석한 Im et al.(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성유원지의 장소성과 행동의도 간의 인과구조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 이미지보다 장소 만족 요인이 장소애착, 장소기능, 행동의도와 관계가 더 깊다고 생각하여 Fig. 1과 같은 모형을 채택하였다. 장소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Kang and Choi, 2012; Im et al., 2013)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가설 1(H1): 장소 만족

도는 장소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H2): 장소 만족도는 장소기능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H3): 장소애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H4): 장소기능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H5): 장소만족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H6): 장소기능은 장소애착에 영향을 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2.3.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는 수성유원지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개화기) 2018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2차 설문조사(비개화기)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6일간 진행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55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사용한 주요 지표는 CFI, RMSEA이며 CFI는 0.90 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 대상 및 범위

수성유원지 방문자 대상 설문지 255부의 인적특성을 분석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방문객의 성별에서 여성의 빈도가 더 높았지만 거의 비슷하였다. 연령에서는 40대(27.8%)와 50대(32.2%)의 합이 60%로 장년층의 방문이 많았다. 방문객의 거주지는 수성구(28.6%)가 가장 많았다. 수성유원지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객의 직업에는 주부(25.9%)와 자영업자(22.4%)가 가장 많았다.

3.2. 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에 사용된 15문항은 장소 만족도 4문항, 장소애착 4문항, 장소기능 4문항, 행동의도 3문항으로 하위요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alpha coefficient가 0.846으로 양호 기준값인 0.7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하위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장소 만족도가 0.692, 장소애착 0.700, 장소기능 0.688, 행동의도 0.846으로 모두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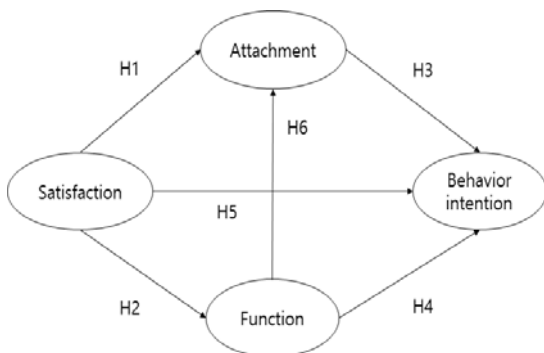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respondents

	Domain	N	%
Gender	Male	126	49.4
	Female	129	50.6
Age	10s	6	2.4
	20s	27	12.9
	30s	36	14.1
	40s	71	27.8
	50s	82	32.2
	60s	33	12.9
Area	Jung-gu	9	3.5
	Nam-gu	21	8.2
	Dong-gu	44	17.3
	Buk-gu	44	17.3
	Seo-gu	42	16.5
	Dalseo-gu	22	8.6
	Suseong-gu	73	28.6
	Job	Employee	32
Profession	23	9.0	
Self-employment	57	22.4	
Job	Teacher	31	12.2
	Student	27	10.6
	House keeper	66	25.9
	Public servant	19	7.5
Total		255	100

최저기준인 0.5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2).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 행동의도를 잠재변인으로 측정된 모형의 적합도는 χ^2 , TLI, CFI, RMSEA 지수를 사용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n > 200$) 연구모형은 기각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TLI, CFI, RMSEA를 함께 사용하였다. Table 4에서 $\chi^2 = 111.388$ (df=84, $p=0.024$), TLI=.968, CFI=.974, RMSEA=.036으로 나타났다. χ^2 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의 p값이 0.05 미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나타났다으나 표본의 크기에 대한 영향으로 보이며, TLI, CFI는 적합도 기준인 0.9 이상, RMSEA 적합도 기준인 0.05 미만을 충족하여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집중타당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AVE(평균분산추출)와 CR(개념신뢰도)을 산출

한 결과 AVE 범위는 0.522~0.782으로 기준인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R(개념신뢰도)의 범위는 0.810~0.915로 0.7 이상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측정변인과 잠재변인간의 요인계수는 Table 2와 같고, 유의성(C.R.)도 모두 5.811 이상으로 기준인 1.96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별타당도는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의 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잠재변인 간의 다중공산성이 의심된다. Table 3에서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0.429~0.684로 나타났으며 실제 다중공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VIF가 10을 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가 2정도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

3.3. 수성유원지 장소성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도는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Table 5에서 만족도→장소기능($\beta=.577$, $p<0.001$, H2), 장소애착→행동의도($\beta=.450$, $p<0.001$, H3), 장소기능→행동의도($\beta=.247$, $p<0.05$, H4), 장소기능→장소애착($\beta=.637$, $p<0.001$, H6)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족도→장소애착(H1), 만족도→행동의도(H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Fig. 2는 최종 결과 모형으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10,000회를 하였으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장소기능→장소애착→행동의도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H1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장소 만족도는 장소애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유원지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대상지인 대학로(Shin and Choi, 2010) 등의 장소처럼 역사나 문화가 형성된 장소가 아니라 생태복원 이후 새롭게 변화한 장소로 아직은 장소애착의 영향이 다른

Table 2. The results of CFA and reliability analysis

	Domain	loading	C.R.	AVE	CR	Cronbach's α
Place Satisfaction	Harmonious surroundings	.649				
	Green areas	.599	7.060	.522	0.810	0.692
	Walking spaces	.463	5.811			
	Maintenance conditions	.691	7.594			
Attachment	.633					
Place Attachment	Contentment	.572	7.042	.533	0.820	0.700
	Nostalgia	.563	6.960			
	Meaningful Place	.670	7.836			
Place Function	An outing place	.603		.547	.824	.688
	Meeting point place	.497	6.232			
	Resting place	.517	6.420			
	Commercial business place	.758	8.088			
Behavioral Intension	Revisiting	.808		.782	.915	.846
	Positive WOM	.736	12.107			
	Recommendation	.866	14.04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latent variables

	Satisfaction	Attachment	Function	Behavior intention
Satisfaction	1			
Attachment	.429***	1		
Function	.577***	.673***	1	
Behavior intention	.494***	.684***	.641***	1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4.** Model fit

CMIN	df	CFI	TLI	RMSEA
111.388*	84	.974	.968	.036

잠재변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H2 검증에서 장소 만족도는 장소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수성유원지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장소기능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H3 검증결과는 장소애착이 행동의도에 직접효과가 있다(Lim et al., 2011; Park, 2013; Kang and Chin, 2018)는 기존연구 결과와 같았다. H5 검증결과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의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기존연구에서는 장소만족도와 행동의도

의 직접효과가 있다(Lee and Kim, 2013; Ryu and Choi, 2014)는 기존연구의 결과가 있었지만 수성유원지의 경우에는 직접효과 보다는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수성유원지는 장소기능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것을 보여준다. H6 검증결과, 장소기능은 장소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마다 가지는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장소성의 인과관계가 다르게 적용(Relph, 1976)되지만 비교적 오래된 장소, 역사성이 있는 장소에는 장소

Table 5. The results of structural model

Path	Estimate		S.E.	C.R.
	B	β		
Satisfaction				
→Fuction	.368	.577	.075	4.894***
→Attachment	.055	.061	.099	.554
→Behavior intention	.181	.158	.102	1.771
Function				
→Attachment	.896	.637	.200	4.493***
→Behavior intention	.443	.247	.224	1.974*
Attachment				
→Behavior intention	.573	.450	.144	3.980**

*p<0.05, **p<0.01, ***p<0.001

Table 6. Bootstrap analysis of indirect effects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Satisfaction→Function→Attachment→Behavior intention	.189	.079	.086~.409
Satisfaction→Function→Behavior intention	.163	.105	-.014~.410
Satisfaction→Attachment→Behavior intention	.032	.068	-.093~.186

애착이 다른 변인보다 영향이 큰 특징이 있다(Shin and Choi, 2010; Lee and Kwon, 2012). 수성유원지처럼 환경의 변화가 큰 곳은 장소 기능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소성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경험의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수성유원지 생태복원 사업이 후 변화한 환경의 만족도가 장소기능을 매개하여 장소애착과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이 수성유원지를 나들이장소, 만남의 장소, 상업 시설이 다양한 장소, 휴식의 장소로 판단하는 장소의 기능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성유원지 내의 경관과 녹지조성과 보행공간, 유원지 시설의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수성유원지를 만남의 장소 등으로 판단하게 하였으며, 장소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애착을 갖게 하였으며, 재방문 의사를 높이며,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심 속의 유원지의 재정비와 생태복원사업의 성과가 장소의 애착이나 재방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방문객의 장소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인 경험과 함께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

후 재방문 등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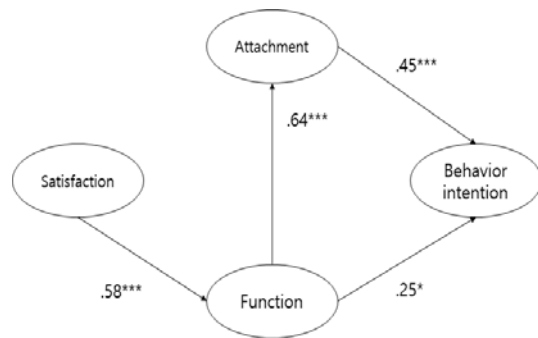


Fig. 2. Standardized estimates for final model.

4. 결론

본 연구는 수성유원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소 만족도와 장소성 인식 요인, 행동의도 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수성유원지의 만족도 향상과 장소성 인식을 높이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소마다 개인과 집단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Relph, 1976), 장소성 형성요인의 인과관계의 측정을 통해 장소의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수성유원지의 장소 만족도와 장소성 인식요인 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세운 6개의 가설 중 4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장소 만족도는 장소기능 인식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진다(H2). 장소애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진다(H3). 장소기능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진다(H4). 장소기능은 장소애착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진다(H6). 장소만족도와 행동의도 사이에는 직접효과가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장소 만족도→장소기능→장소애착→행동의도’로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경유하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수성유원지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행동의도에 직접효과를 주지 않았지만,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장소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판단하는 기능에 맞게 유원지를 관리하여야 재방문, 추천의사 등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성유원지는 장소성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장소애착의 영향이 적었고 장소기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방문객의 유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갖는 장소의 정체성을 갖추어야한다. 수성유원지는 ‘나들이 장소’, ‘만남 장소’, ‘휴식 장소’, ‘상업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소의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2020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REFERENCES

- Brehm, J. M., Eisenhauer, B. W., Stedman, R., 2013, Environmental concern: examining the role of place meaning and place attachment, *Soc. Nat. Resour.*, 26, 522-538.
- Choi, H. J., Lee, C. K., Oh, S. H., 2020,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ourists' experience, perceived value, place attachment, and satisfaction in Yeosu: focusing on the theory of experience economy, *Int. J. Tour. Hos. Res.*, 34, 5-19.
- Giuliani, M. V., Feldman, R., 1993,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al and cultural context, *J. Env. Psych.*, 13, 267-274.
- Halpenny, E., 2010, Pro-environmental behaviours and park visitors: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J. Env. Psych.*, 30, 409-421.
- Han, S. M., Im, S. B., 2009, An Analysis of elements in Yen-Ben Street that from a sense of place as an ethnic enclave, *J. Kor. Inst. Landsc. Arch.*, 36, 81-90.
- Im, H. N., Kang, D. W., Choi, C. G., 2013, Effects of placeness cognition characteristics on behavioral intentions, *J. Kor. Urb. Des.*, 14, 113-126.
- Kang, D. W., Choi, C. G., 2012, Causality analysis of placeness cogni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by visitors character, *J. Kor. Plan. Assoc.*, 47, 363-379.
- Kang, H. W., Chin, S. T.,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community attachment and behavioral intention of supporter in Women's Professional Basketball League, *Kor. Soc. Spor. Scien.*, 27, 175-186.
- Kim, D. J., 2017, A Study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tractiveness, image and loyalty, *J. Kor. Ent. Ind. Ass.*, 11, 1-11.
- Kim, D. J., Park, J. H., 2017, A Study on causality of the sense of place formation in the private-invested railroad station complex, *J. Kor. Region. Dev. Assoc.*, 29, 53-71.
- Kim, H. Y., Kim, S. J.,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formative factors of placeness on place attachment, the value perception and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s in museum, *J. Art. Manag. Pol.*, 30, 185-217.
- Kwon, Y. K., Jung, Y. H., Im, S. B., 2011, A Study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Insa-dong street's sense of place, *J. Kor. Plan. Assoc.*, 46, 139-151.
- Lee, H. G., Kwon, K. N., 2014, The study about experience value, place attachment, and placeness of school playground without wall, *J. Kor. Soc. Sport*, 27, 103-123.
- Lee, H. R., Lee, H., 2014, The relationship among volunteering satisfaction, place attachment, and tourism behavioral intention in regional based mega-events, *J. Tour. Leis. Res.*, 26, 253-272.
- Lee, J. H., 201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J. Kor. Bib. Soc. Lib. Inf. Scien.*, 23, 253-278.
- Lee, N. H., Choi, C. G., 2011, Causality of placeness

- formatio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 Kor. Plan. Assoc., 46, 19-36.
- Lee, S. H., Hwang, K. W., 1997, The ambiguous concepts of place and placeness, J. Kor. Plan. Assoc., 32, 169-184.
- Lee, Y. A., 2018, Case study of touristification coping process, Int. J. Glob. Cult., 7, 38-49.
- Lee, Y. G., Kim, H. S., 2013, Place images affecting the satisfaction and resultant behavior of Cheonggyecheon: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s and foreigners, J. Kor. Reg. Dev. Ass., 25, 67-89.
- Lim, S. W., Kim, M. J., Lee, H. K., 2012, The causal model among perceived value, local attachment, perceived usefulness and behavioral intentions about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Kor. Soc. Spor. Leis. Stud., 48, 255-266.
- Maarja, S., Hannes, P., 2009, The dimensions of place meanings, Living Rev. Landscape. Res., 3, 5-19.
- Park, S. Y., Kim, Y. J., 2016, A study on place attachment and influential factor of apartment residents, J. Dig. Int. Des., 15, 59-72.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1st ed., Pion Limited, London, 8-12.
- Ryu, I. P., Choi, I. G., 2014, A Study on the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 Kor. J. Tour. Res., 29, 413-436.
- Shim, C. S., 2014, Urban tourism and place, Tour. Stud., 26, 27-43.
- Shin, J. R., Choi, C. G., 2010, Impacts of human factors on the placeness in Hongik university area, J. Kor. Plan. Assoc., 45, 5-20.
- Tuan, Y. F., 1979,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8th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35.
- Williams, D. R.,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 Sci., 49, 830-840.

-
- Graduate Ph.D. Jae-Gyeong H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hjk3787@naver.com
 - Professor. Boong-Hoon Eom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bheom@cu.ac.kr